

'99년 육우산업을 결산한다

1. 머리말

마 치 운동시합 날짜가 얼마 안남은 선수진영처럼, '99년의 한우 및 육우산업도 일면 불안감을 간직하면서도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쇠고기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는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쇠고기산업은 이제 불과 1년을 남겨둔 채 개방의 파고가 드세지만 국내의 대응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금년에 전국한우협회가 창립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동안 가장 사육농가 호수가 많으면서도 독립된 모임체 하나 없었고 그만큼 결집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방이 되더라도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한우농가의 권익을 대변하고 소득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서 한우조합도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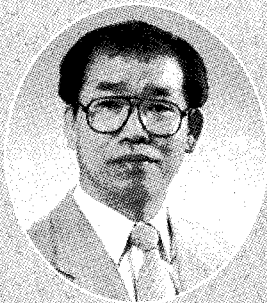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앞으로 잘 가꾸어서 큰 재목으로 키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더러는 인접기관과의 역할분담과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2. 주요 정책

가. 중장기 축산발전 및 투융자 계획

금년 5월에 발표된 「축산분야 2단계 투융자 계획」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농업·농촌투융자 계획의 10% 이상인 4조 5,109억 원을 축산분야에 투자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그 내용이 한·육우 뿐만 아니라 축산 전분야를 망라하고 있지만 주된 목표는 쇠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한우농가는 물론 전체 축산농가들이 침체된 분위기에 빠져있는데 정부의 지원정책 발표로 활기를 불어넣자는 데 있다.

새로운 정책방향의 전환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축산종합자금제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개별 사업별로 지원되어 오던 자금을 통합해 수요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축산경영체의 발전단계에 맞춰 자금을 종합지원 하되 자금 대출기관이 사업자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자금지원과 경영·기술컨설팅을 연계한 것도 특징이다. <표 1>참조



이 병 오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사실 그동안 막대한 정책자금 이 투입된 「한우경쟁력제고 대책」은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주로 시설자금에 치중되고 1회성 자금지원에 그치다 보니 전업경영체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채 부채농가로 좌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한우농가나 육우농가가 훌륭한 경영계획을 추진할 경우 시설개선은 물론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까지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경영체를 육성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농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둘째는, 축산물 가공·유통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이다. 고품질 축산물이 생산되어도 가공이나 유통과정이 허술하면 품질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2단계 투융자계획에서 이 분야에만 1조 5,428억원을 투자하여 가공 및 유통분야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유통·가공·소비촉진에 할애되는 투융자액은 전체금액의 34.2%에 달한다. 1단계(1992~98년)때와 비교하여 가장 성장세가 큰 부분이다. <표 2>참조

사실 쇠고기 부문에서도 생산단계에서 아무리 고급육을 생산해도 위생도축 시설이 미비하거나 냉장육 유통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냉동육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 수입냉장육

<표 1> 99년도 주요 한우우시책

시책	내용
축산종합자금제 도입과 축산전업경영체 육성	· 종합적인 자금지원으로 전업경영체 육성 · 경영·기술 컨설팅 체제 구축 · 시설자금과 병행하여 운영자금 지원 확대
수입개방대비 한우사육기반유지	· 송아지 생산안정제 전국 실시(2000년) · 등급제 확대 시행(156개 시군, 1999년) · 한우전문판매점 확대
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 LPC 건설(2000년까지 10개소) · 냉장브랜드육, 부분육 유통확대 · 식육판매점의 규모화, 현대화
환경친화적 축산과 부존자원 활용 확대	· 유기축산물의 생산·유통체계 구축 · 가족분뇨의 자원화 · 국내 부존사료자원 활용(조사료, 남은 음식)
신지식 축산업 기반 구축	· 새로운 영농조직, 특산 브랜드육 개발 · 체세포 복제기술 실용화 추진 · 지속적인 기촉개발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 체계 강화	· 도축장·축산물기공장에 대한 HACCP 도입확대 · 축산물 검역·검사기능 선진화

자료 : 농림부, 「축산시책방향」, 1999. 9

<표 2> 축산분야 2단계 투융자계획

(단위 : 억원, %)

구분	생산지원 등	경영안정	유통·가공 소비촉진	방역·위생	친환경 축산	기타	계
1단계 (A)	21,796 (51.2)	600 (1.4)	6,983 (16.4)	1,094 (2.6)	6,699 (15.7)	5,462 (12.8)	42,634 (100)
2단계 (B)	9,545 (21.1)	6,988 (15.5)	15,428 (34.2)	3,900 (8.6)	6,367 (14.1)	2,881 (6.4)	45,109 (100)
B-A	△12,251	6,388	8,445	2,806	△332	△2,581	2,475

자료 : 농림부, 축산시책방향, 1999. 9.

주 : 1 단계 1992 ~ 1998년, 2 단계 1999 ~ 2004년.

축산분야 투융자비 가운데 축산사업비 3조 902억원, 공동사업비 14,207억원.

이 부분육으로 유통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공·유통부문이 개선되지 않고는 차별화를 꾀하기 어렵다. 다만 가공 및 유통시설은 막대한 시설투자 재원이 소요되고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결국 유통·가공·소비단계의 혁신과 변화는 다시 생산단계의 품질고급화를 유인하고 나아가

서 기술수준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나. 한우산업기반 안정대책

금년 11월에 발표된 「개방대비 한우산업기반 안정대책」은 수입개방을 앞두고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유지를 꾀하기 위해 몇가지 주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되, 안정기준가격을 시범사업기간중의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시장가격 하락시 안정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보전 지급하는 지급한도액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 및 농가부담금을 지급한도액의 10%라는 비율납부 방식에서 두당 1만원의 정액납부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며, 현재 축협중앙회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를 시·군과 일선 지역축협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추진체제로 개편하였다.

둘째, 한우협동조합을 육성하여 한우농가들의 이익단체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즉, 권역별로 생산자단체(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작목반, 축산계 등)와 번식·비육농가 등으로 한우사업 추진체를 구성하여 한우협동조합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정책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이다.

또 한우협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하도록 하여 한우협회가 실질적인 지원조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우협동조합 연합회의 구상도 포함되어 있다.

셋째, 축산물종합처리장(LPC) 10개소를 2000년까지 건설 완료하여 도축 및 가공현대화를 선도하도록 하고, 3,500여개 농협

판매망을 적극 활용하여 축산물 판매를 확대하며,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을 기존의 700개소에서 2004년까지 2,000개소로 늘림으로서 가공 및 판매구조를 크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브랜드가맹점을 2004년까지 2,500개소 이상으로 늘리고, 위생시설과 신용을 확보한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판매점 3,000개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소매점의 규모화, 현대화를 통해 소매유통구조를 혁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자연교배를 억제하고 인공수정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가인공수정기」를 저가로 공급하고, 한우 고급육 출하포상금을 10~15만원으로 확대하며, 거세비육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수정란 이식 및 체세포복제기술 조기 실용화를 추진하고, 음식점에서의 육류 원산지 표시 제도화 추진, 한우 우수성 홍보의 내용도 들어 있다.

다. 정책의 평가

어떠한 정책이든 정책의 목표와 내용보다는 시행과정의 미비나 시행착오, 이해상충 집단간의 갈등으로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금까지 열거한 많은 정책들은 그동안의 방식이던

「정부의 목표설정 및 자금지원 → 축협중앙회 위탁 시행」에서 일선 시·군이나 지역축협을 통한 정책집행을 전제로 깔고 있다. 협동조합개혁으로 빚어진 갈등이 자칫하면 정책혼선과 힘의 소모를 초래하여 개방을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크다.

축산종합자금제의 집행은 농가선정, 컨설팅, 사후관리가 수반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시행도 그동안 축협중앙회내에 당사업을 위한 전담 사업단이 도상연습 등 준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행주체가 바뀐 관계로 농림부의 관리하에 전국에 퍼져 있는 수많은 지자체와 일선 축협을 상대로 정책이 무리없이 추진되고 관리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일선 축협을 한우조합으로 개편하는 문제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다. 협동조합개혁문제가 빨리 마무리되어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고 심기일전하여 축산인들이 신명난 모습으로 개방극복 노력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겠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재원조달, WTO의 최소허용보조 제약, 개방이후 소값의 향배 등 정책수립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안정기준가격 80만원의 산정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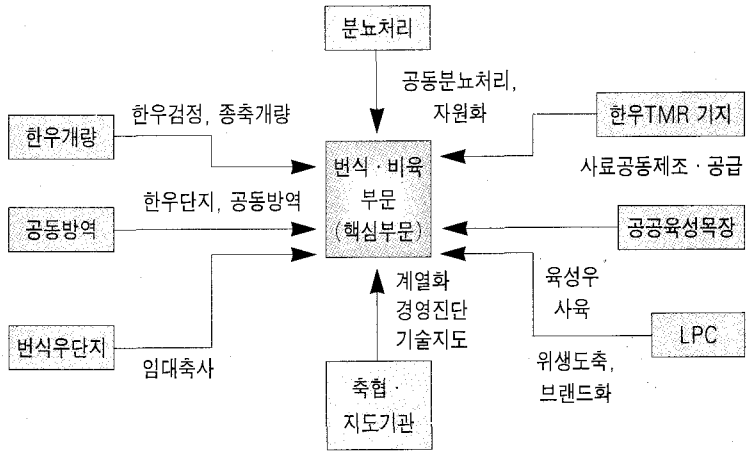
보전금액 20만원이 어디까지나 보험금 성격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한우농가의 생산기반을 확고히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농민들에게 전달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젖소나 육우비육우용 송아지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이 쇠고기 수입개방 1년전 송아지가격에 대한 부족분 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 점을 상기할 때, 우리나라의 송아지안정제는 비슷하게 흉내만 내면서 본질적인 정책 의지와 수단이 결여된 듯한 인상이다.

또한 정부의 한우 및 육우관련 시책은 농가가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생산조직 활성화 대책이나 기간시설 확충 시책이 누락되어 있어 아쉬움이 크다. 지금까지 제시된 시책들은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입개방 이후 쇠고기 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개선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우계열화가 이루어져 지역축협이 번식농가의 어린 송아지를 조기에 위탁사육하여 비육밀소가 될 때까지 맡아서 길러주면 번식농가는 규모확대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림 1) 한우경영의 핵심부문과 주변부문



또는 번식지대에 임대축사를 건립하여 번식농가들이 현대식 축사에서 번식우를 기르고 공동관리하도록 하면 인건비, 사료비, 분뇨처리비 등을 절감하고 규모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지역단체로 공공육성목장을 건립하여 송아지를 초지육성시키면 그만큼 사료비를 절감시켜주고 또한 균일한 비육밀소 공급이 가능하여 비육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규모확대와 기술고도화에 따라 농가의 대응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농가는 핵심부문의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주변부문으로부터는 해방되도록 경영조직을 슬림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지원조직이 활성화되어 주변부문 - 예를 들어, 육성우 사육, 자가 배합사료의 제조 및 공급, 분뇨처리, 방

제, 경영컨설팅 등은 아웃소싱시키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그림 1)참조

3. 생산 및 가격동향 가. 한·육우 생산동향

금년 9월 통계로 우리 나라의 한·육우두수는 209.4만두로 전년동기에 비해 53.9만두, 20.5%나 줄었다. 이중 가임암소 두수는 92.9만두로 전체두수의 44.4%인데 이도 동기간중 23.7만두, 20.3%가 감소하였다.

이는 97년말 이후 IMF파동으로 사육규모를 줄이거나 포기한 농가가 속출하였고, 개방을 앞두고 가격에 대한 불안정심리가 작용하여 암소도축이 성행하고 입식을 주저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특히 암소두수의 감소는 사육기반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표 3)참조

〈표 3〉 한육우 사육동향

(단위: 천두, 천호, %)

항 목	'98년 9월	'99년 9월	전년동기(비율)
-총두수	2,633	2,094	-539(-20.5)
▪가임 암소	1,166	929	-237(-20.3)
▪1세 미만	1,015	758	-257(-25.3)
▪1~2세 이상	585	520	-65(-11.1)
▪2세 이상	1,033	816	-217(-21.0)
▪50두 미만	2,180	1,621	-559(-25.6)
-농가수	450	372	-78(-17.3)
▪50두 미만	445	367	-78(-17.5)
-도축두수	148	92	-56(-37.8)
▪한우	115	75	-40(-34.8)
▪젓소	30	15	-15(-50.0)

자료: '99년 도축두수는 8월 수치임.

〈표 4〉 한육우 및 쇠고기 가격동향

(단위: 천원, %)

항 목	'98년 11월	'99년 11월	전년동기(비율)
-암 송아지	547	929	382(69.8)
-수 송아지	705	1,298	593(84.1)
-암 소 (500kg)	2,012	2,793	781(38.8)
-수 소 (500kg)	2,073	2,967	894(43.1)
-젓소 분유 떼기 (수)	242	495	253(104.5)
-젓소 수 소 (500kg)	1,530	1,702	172(11.2)
-쇠고기도매가격(원/지육kg)	6,556	8,066	1,510(23.0)
-쇠고기소매가격(원/정육500g)	6,270	8,103	1,896(30.5)

주: '99년 쇠고기가격은 9월 가격임.

연령별로 보면 1세미만 송아지가 75.8만두로 전년동기에 비해 25.3%가 줄었고, 2세 이상이 81.1만두로 21.0%가 줄었다. 규모별로는 50두 미만중에서 25.6%로 가장 많이 줄었다. 같은 기간중 사육농가 호수는 45만호에서 37만호로 17%가 감소하였다. 호당 사육규모는 현재 5.6두 수준이다.

금년 8월의 소 도축현황을 보면 총 도축두수는 91,754두인데 이중 한우가 82.1%, 젓소가 16.9%, 육우 및 교잡우가 1.0%이다. 젓소의 경우 암소가 48%, 수소가 52%를 차지한

다. 한우는 암소가 61.3%로 수소 38.7%보다 월등히 높다. 앞에서 언급한 암소도축 성행을 뒷받침하는 수치이다.

나. 가격동향

금년의 소값 및 쇠고기가격은 강세로 일관하고 있다. 금년 11월 시점에서 수송아지가격은 두당 129.8만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4.1%나 올랐다.

또 500kg 기준 큰소 수소가격은 296.7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3.1%가 올랐다. 젓소 분유떼기 수송아지는 25.3만원, 젓소 수소(500kg)은 170.2만원으로 동기

간중 각각 104.5%, 11.2%상승하였다. 쇠고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도 각각 23.0%, 30.5% 상승하였다.〈표 4〉참조

물론 작년은 IMF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어 축산물가격이 침체되었었고, 금년에는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되살아나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등급제와 유통시스템 정착으로 둔갑판매가 현저히 줄고 있는 상황속에서 한우나 고급 육우고기에 대한 수요는 강한데 비해 생산기반 축소로 공급이 달려 가격이 강세를 띄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가격의 강세가 생산기반 확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1년 뒤 수입개방을 맞이하게 될 경우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송아지가격의 강세는 또한 비육농가의 입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비싼 송아지를 입식시켰다가 출하시 수입개방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아무튼 금년의 소값 및 쇠고기가격 호조는 불안감을 내포한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4. 맺음말

금년 11월부터 시작한 WTO 차기협상은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지만 쇠고기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UR협상에 의해 2001년 쇠고기시장이 개방되지만 개방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수출국들이 우리 나라에 대해 관세를 인하나 선진국대우(개도국에 비해 국내보조금 삭감 폭이 커지고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영향을 미침)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99년을 회고하는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세미나, 공청회, 정부시책 발표 등을 통해 한우산업을 지키고자 하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좋은 대안들도 제시되었다. 송아지경매제도나 다산장려금 제도 도입 등이 한 예이다.

기술수준도 많이 향상되고 있다. 거세비율이 10%에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 등급제 정착과 고급육 수요증가에 따라 등급간 가격차가 커지면 거세는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거세장려금 지급도 촉매역할을 할 것이다. 1등급 출현율도 고급육생산에 전념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등에서는 7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으로 넘어갈 미결 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육우(젓소 수송아지, 육우비육용 송아지)를 포함시키는 문제, 젓소고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해 홍보하고 브랜드화 하는 문제, 소값을 수입개방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향 안정화시키는 문제, 한우고기의 55%를 차지하는 3등급육을 어떻게 고급육으로 끌어올리느냐의 문제 등이다.

이제 차분히 2001년을 염두에 두고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의 한·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짜야할 때이다. ☺

(필자연락처 : 0361-250-8600)

최적의 목장요지를 매매합니다.

- 위 치 : 전남 영암군 미암면 선황리 대지 391-1 산33
- 목장용지 : 5000평 ● 축사 및 착유실 : 300여평
- 퇴비사 : 100여평 ● 주 택 : 30평

민원발생 우려가 전혀 없고 여름엔 더위걱정이 없습니다.

대불산단 및 삼호지방공단이 입주해 있어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가치도 있습니다.

전 화 : (0693)472-5123